

• 가

본 연구는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성 및 과제 수행시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또래 수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만 5-6세 아동 102명(남아 60명, 여아 42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동의 또래 수용은 또래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개별적인 면접으로 측정하였고, 아동의 정서성은 어머니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어머니 행동은 협력 과제 상황에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어머니 행동을 비디오 녹화한 뒤 평정하였다. 연구 결과,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여아의 긍정적 정서성이 또래 수용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과제 수행시 어머니의 민감성/긍정적 지도 및 부정적 통제 행동은 남, 여 아동의 또래 수용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표현은 남아의 또래 수용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더욱이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부정적 통제 행동은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부정적 통제 행동을 보이고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 때 또래에게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또래 수용, 아동의 정서성, 과제 수행시 어머니 행동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최초의 사회적 체계인 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를 시작으로 성장함에 따라 또래와의 관계로 확대되어 간다. 수직적 관계인 부모-자녀 관계에 비해 또래 관계는 수평적 특성을 지닌 관계로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

적 역할과 규범을 배우고, 사회적 기술을 연습한다(Hartup, 1983). 아동기는 또래 집단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전 시기에 비해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데,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은 이 시기에 습득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 하겠다(Rubin & Rose-

Krasnor, 1992).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아동이 일찍부터 보육기관 등에서 또래 관계를 경험하고 많은 시간을 또래와 보내게 됨에 따라 또래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또래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은 인지 발달이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시기 또래 집단에 수용되는 경험은 건강한 자아 및 아동기 이후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아동기에 또래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은 청소년기의 낮은 학업 수행, 중퇴와 같은 학교 관련 문제 및 청소년 비행, 우울증과 같은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였다(Crick, 1996; Kupersmidt & Coie, 1990; Parker & Asher, 1987). 이와 같이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필수적이지만, 모든 아동이 또래 관계를 원만하게 맺는 것은 아니며 또래 집단에 수용되는 정도에도 개인차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열된 조기 교육으로 인하여 아동의 사회성이 발달해야 할 시기에 인지적 자극에만 과다하게 노출된 결과, 대인관계에서 미숙한 아동이 늘어나고 ‘집단 따돌림’과 같은 극단적인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또래 관계에서 유능한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또래 수용과 관련된 변인은 대인간 요인과 개인 내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아동의 또래 수용과 관련된 대인간 요인으로서 아동이 최초로 접하는 사회적 맥락인 가족 체계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들 수 있다. 부모와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도 유능하며, 부모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낮은 또래 수용과 관계되었

다. Putallaz(1987)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자녀와 일관된 태도로 상호작용 할수록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이고, 집단에서 잘 수용된다고 하였다. Hart 등(Hart, Ladd, & Bursleson, 1990)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권력주장적 훈육 방식이 아동의 낮은 또래 지위와 관련되어, 어머니가 아동을 비판하고 거부적으로 상호작용하면 아동이 또래에게 수용되는 정도가 낮았다(Rubin, LeMare, & Lollis, 1990). Clark과 Ladd(2000)는 아동의 또래 수용에 중요한 부모 역할은 아동과의 관계성 측면임을 지적하면서, 부모-아동간의 관계성이 아동의 친사회적 성향에 영향을 줌으로서 또래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자율성에 대한 지지는 또래 관계에서 아동의 주장성과 관계되었다(Denham, Renwick, & Holt, 1991). MacDonald와 Parke(1984)는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이를 또래 관계에 적용하기 때문에 부모 양육 행동이 아동의 또래 수용도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아동 관계는 하나의 맥락으로서 아동의 또래 관계를 비롯한 다른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Dumas, 1989; Olson, 1992).

개인 내 요인으로서 아동의 정서성은 사회적 행동에서 정서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Thompson, 1994), 또래 관계의 유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Stocker와 Dunn(1990)은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아동이 더 많은 또래 거부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Eisenberg 등(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은 학령 전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남, 여아의 사회적 기

술 및 남아의 또래 지위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높은 부정적 정서성은 낮은 주의 조절과 함께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절반 이상을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화를 잘 내는 것과 같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만족 지연이나 순서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정서 조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또래 집단에게 공격적이고 적대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Rubin, Hymel, Mills, & Rose-Krasnor, 1991). Katz 등(Katz, Kramer, & Gottman, 1992)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긍정적 전략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힌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아동의 정서성은 단일 차원의 양극적 개념이라기보다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두 차원(Belsky, Hsieh, & Crnic, 1996)이므로, 또래 수용과 관련된 정서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차원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Sroufe 등(Sroufe, Schork, Motti, Lawroski, & LaFreniere, 1984)은 아동 개인의 정서적 특징이 집단 내에서 높은 또래 지위를 유지하고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 하는데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아동의 긍정적 정서성이 또래 수용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긍정적 정서 성향을 지닌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일 뿐 아니라(Cole, Michel, & Teti, 1994), 공격적 행동을 덜 나타내었다(Arsenio, Cooperman, & Lober, 2000). Hubbard와 Coie(1994)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서 정서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제시하면서, 기질적 성향인 정서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동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정서성은 또래 관계에 중요

한 개인 내 특성이지만, 정서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3-4세 유아의 행동 억제와의 관계를 살펴본 것(박성연, 1998; 박성연 · 박성연, 2001)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5-6세 아동의 또래 관계와 관련하여 아동의 정서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개인내, 외적 요인은 각각 독립적이기 보다 상호작용적 방식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아동의 또래 관계가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 양육 행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동의 정서성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중재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는데, Rubin 등(Rubin, Hastings, Chen, Stewart, & McNichol, 1998)의 연구에서 화를 잘 내고 우는 등 정서 역조절이 높은 아동이 또래에게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보였지만,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성과 어머니 행동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어머니가 부정적 지배 행동을 보이는 남아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수줍어하고 과묵한 아동의 경우, 정서 역조절과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낮은 지도 행동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Rubin, Cheah, & Fox, 2001). 이들은 기질적 측면인 정서성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영향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경험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인 내, 외적 변인들의 영향은 상호작용적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시사하였다. 따라서 이 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정서성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어머니 행동이 어떠한 과정으로 아동의 또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또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호작용적 입장에서 아동의 정서성과 어머니 행동이 또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 또래 수용과 관련된 어머니 행동을 자기 보고식 질문이나 면접으로 측정하였는데(박주희, 2000; 손승희, 2002), 이러한 측정 방법은 어머니의 실제 행동보다는 바람직한 어머니 행동을 보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또래 수용과 관련된 실제적인 어머니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자기 보고식 측정보다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Dumas, 1989; Parke & Tinsely,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 내 변인인 정서성과 대인간 변인으로서 과제 수행시 자녀에 대한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또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정서성과 또래 수용 간의 관계를 어머니 행동이 중재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아동의 또래 수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지닌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의 정서성이 또래 수용과 관계가 있는가?

둘째, 과제 수행시 어머니 행동은 아동의 또래 수용과 관계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정서성과 또래 수용의 관계는 과제 수행시 어머니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 5, 6세 아동 102명(남아 60명, 여아 42명)과 그들의 어머니 1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하여 서울시 에 위치한 유치원 여섯 곳과 경기도 일산 신도시에 위치한 유치원 한 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각 유치원의 교사를 통해 아동의 가정에 연구 협조문을 보낸 다음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과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총 104쌍의 아동과 어머니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나,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동이 연구 과제 실시를 중단하거나 거부하여 탈락된 두 쌍을 제외한 총 102쌍의 아동과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아동의 연령은 평균 5세 8개월로 만 5세 아동이 76.5%, 만 6세 아동이 23.5%였고, 남아와 여아가 각각 58.8%와 41.2%로 남아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85명, 83.3%)이 두 명 이상의 형제 관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대상 아동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가 평균 37.3세, 어머니가 34.7세였으며, 교육 수준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고졸 이상으로 대부분의 아버지(90명, 90.2%), 어머니(74명, 72.5%)가 초대졸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부모의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35명, 34.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22명, 21.6%), 자

영업(20명, 19.6%)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대부분이 취업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84명, 82.4%)이었다. 가계의 월 평균 수입은 절반 이상(53가구, 52%)이 300만원이상을 차지하였다. 부모 학력과 직업 및 소득을 같이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 대상 아동의 가정은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측정 도구

또래 수용

학령 전 아동의 또래 집단 내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sher 등(Asher, Singleton, Tinsely, & Hymel, 1979)의 또래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각 아동별 개별 면접을 통해 연구 대상과 동성인 학급 아동에게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의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면서 그 아동과 놀고 싶은 정도를 3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또래 평정의 대상을 동성 아동으로 제한한 것은 이성 아동에 대한 평정이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근거한 것이다(Asher & Hymel, 1981; Daniels-Beirness, 1989). 또한 아동의 언어적 능력과 수줍음이 아동 응답을 제한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놀고 싶으면 ‘웃는 얼굴 그림(3점)’ 보통이면 ‘무표정 얼굴 그림(2점)’, 놀고 싶지 않으면 ‘찡그린 얼굴 그림(1점)’을 선택하게 하였다.

각 아동이 급우들로부터 받은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산출한 후, 이를 동성의 급우수로 나누어 또래 수용 점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또래 수용 점수는 1.00~3.0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정서성

아동의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 (1996)의 아동 행동 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 CBQ) 중 정서성 관련 문항을 번안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정적 정서성은 분노, 두려움, 슬픔의 표현과 관련된 32문항, 긍정적 정서성은 미소/웃음의 표현과 관련된 11문항으로, 정서성 질문지는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는 각 문항에 대해 평소 아동이 보이는 행동에 근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부정적 정서성 32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는 .85이었으며, 긍정적 정서성 11문항의 Cronbach 는 .75이었다.

과제 수행시 어머니 행동

자녀에 대한 어머니 행동 특성을 알기 위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구조화된 상황에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이는 부모-아동 상호작용의 자연 관찰이 가지는 실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자연 관찰보다 구조화된 상황에서의 관찰이 유용하다는 지적에 근거한 것이다(Dumas, 1989; Dumas & LaFreniere, 1995).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예비 조사에 기초하여 ‘칠교 놀이’와 ‘만들기’의 두 가지 협력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과제들은 어머니와 남, 여 아동 모두에게 흥미있으며 아동이 혼자서 완성하기는 어렵지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어머니의 반응성, 정서 표현, 통제 및 지도 행동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였다(Anderson, 1994; Kermen & Block, 1998).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어머니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과 어머니가 위의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분석하였다.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관찰 시간은 20분~40분 정도로 평균 27분이 소요되었다.

과제 상황에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어머니 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Rubin(2000)의 ‘부모 온정과 통제 척도(Parental Warmth and Control Scale)’를 변안, 수정 후 사용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수정된 결과, 어머니의 행동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민감성’, ‘긍정적 통제/지도’, ‘부정적 통제’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협력 과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어머니 행동을 1분 단위로 나누어 관찰한 다음, 1분마다 다섯 가지 하위 영역에 대해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의 3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각각의 어머니 행동은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로 산출하는데, 하위영역별로 어머니 행동의 총점을 총 단위시간 표집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따라서 각 하위영역별 어머니 행동 점수는 1~3점의 범위를 지닌다.

본 연구의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의 10%인 10쌍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에 대해 본 연구자와 아동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한명이 평정한 점수에 기초하여 각 하위영역별로 Cohen의 kappa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긍정적 정서 .94, 부정적 정서 .85, 민감성 .87, 긍정적 통제/지도 .92, 부정적 통제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들의 자세한 설명은 권원희(2002)에 제시되어 있다.

절차

연구 도구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한 예비조사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의 관찰과 또래 평정을 도와 줄 연구 보조원에 대한 사전 훈련이 이루어졌다. 이후 본 조사에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아동의 정서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상 아동의 가정에 전화하여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한 뒤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가정 방문시 연구자는 어머니에게 연구 절차와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게 하였다. 어머니와 아동이 준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장소에 비디오를 설치한 뒤 어머니와 아동에게 두 가지 협력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의 상호작용 장면을 녹화하였다.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이 끝난 뒤 어머니는 아동의 인구학적 배경과 정서성에 관한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가정 관찰이 80%정도 이루어진 시기에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 세 명은 각 아동의 유치원을 방문하여 빈 교실에서 아동에 대한 개별 면접을 통해 또래 평정 척도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변인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아동의 성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 1, 2와 관련하여 아동의 정서성, 과제 수행시 어머니 행동과 또래 수용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

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 3과 관련하여 과제 수행시 어머니 행동에 따라 아동의 정서성과 또래 수용의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정서성과 과제 수행시 어머니 행동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시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 해당 어머니 행동을 평균과 표준편차의 점수 분포에 따라 상·중·하 세 집단으로 구분한 뒤 집단별로 아동의 정서성과 또래 수용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였다.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아동의 또래 수용과 정서성 및 어머니 양육 행동의 가능한 점수 범위와 평균, 표준 편차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두 집단간 평균 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또래 수용 점수의 평균은 3점 만점에 남아 2.35, 여아 2.59로 나타나 연구 대상 아동이 대체로 또래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 본 연구 대상의 여아가 남아보다 동성 또래에게 더 잘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3.58, p<.001$).

아동의 정서성의 하위 차원 중 긍정적 정서성의 평균은 남아 58.75, 여아 62.95로 1-7점의 7점 척도 문항 평균으로 전환하였을 때 각각 5.34, 5.72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얻어 아동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정서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하여 미소나 웃음을 많이

보이는 등 즐겁고 긍정적이었다($t=-3.25, p<.01$). 반면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은 남아 147.20, 여아 140.57로 7점 척도의 문항 평균으로 전환하였을 때, 남아 4.60, 여아 4.40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성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행동은 자녀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긍정적 정서 표현’이 남아 1.53, 여아 1.64, ‘민감성/긍정적 지도’가 남아 1.91, 여아 2.08로 1-3점의 점수 범위를 고려할 때 중간보다 약간 낮거나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였다. 특히 ‘긍정적 정서 표현’과 ‘민감성/긍정적 지도’ 행동 모두 여아 어머니가 남아 어머니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각각 $t=-2.02, p<.05$; $t=-2.44, p<.05$), 여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민감하고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와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부정적 정서 표현’은 남아 1.09, 여아 1.05, ‘부정적 통제’는 남아 1.11, 여아 1.05로 1-3점의 점수 범위를 고려할 때 1점에 가까워 상호작용동안 거의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는 부정적 행동을 많이 보이지는 않았으나, 부정적 통제 행동의 경우 남아 어머니가 여아 어머니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t=3.44, p<.001$), 남아 어머니가 여아 어머니보다 과제 수행을 위한 상호작용시 자녀에 대하여 더 통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대부분의 변인에서 성차가 나타났으므로 이후 분석은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1. 아동의 성에 따른 측정 변인의 점수 범위와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결과

(N=102)

통 계 치 변 인	가 능 점 수 범 위	남아 (n=60)	여아 (n=42)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또래 수용	1-3	2.35(.36)	2.59(.29)	-3.58***
긍정적 정서성	11-77	58.75(7.91)	62.95(5.14)	-3.25**
부정적 정서성	32-224	147.20(19.86)	140.57(22.28)	1.58
어머니 행동	1-3			
긍정적 정서 표현		1.53(.27)	1.64(.29)	-2.02*
부정적 정서 표현		1.09(.01)	1.05(.01)	1.80
민감성/				
긍정적 지도 ¹⁾		1.91(.33)	2.08(.32)	-2.44*
부정적 통제		1.11(.10)	1.05(.01)	3.44***

* $p<.05$, ** $p<.01$, *** $p<.001$

아동의 정서성과 또래 수용의 관계

아동의 정서성과 또래 수용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남, 여 집단별로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r=-.27$, $p<.05$)은 또래 수용과 부적 상관을, 여아의 긍정적 정서성($r=.32$, $p<.05$)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남아와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여아가 또래 집단에게 선호되었다.

표 2. 아동의 정서성과 또래 수용의 적률상관계수

또래 수용	남아(n=60)	여아(n=42)
아동의 정서성		
긍정적 정서성	.22	.32*
부정적 정서성	-.27*	-.26

* $p<.05$

과제 수행시 어머니 행동과 아동의 또래 수용의 관계

협력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녀와 상호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어머니 행동과 아동의 또래 수용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남여 집단별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은 남아의 또래 수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r=.30$, $p<.05$), 부정적 정서 표현은 남아의 또래 수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29$, $p<.05$). 반면, 어머니의 민감성/긍정적 지도 행동은 남, 여 아동의 또래 수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남아 $r=.39$, $p<.01$; 여아 $r=.35$, $p<.05$), 부정적 통제 행동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남아 $r=-.41$, $p<.001$; 여아 $r=-.41$, $p<.01$). 즉, 과제 수행시 어머니가 자녀를 민감하고 적절하게 지도하고 부정적인 통제 행동을 덜

- 1) 어머니 행동의 하위 영역 중 민감성과 긍정적 통제/지도는 매우 높은 상관(남아 .57, 여아 .77)을 보여 두 영역의 점수를 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보일수록 남, 여 아동은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었다. 또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를 덜 보일수록 남아는 또래에게 더 선호되었다.

표 3. 과제 수행시 어머니 행동과 또래 수용의 적률 상관계수

과제 수행시 어머니 행동 \ 또래 수용	남아(n=60)	여아(n=42)
긍정적 정서 표현	.30*	.30
부정적 정서 표현	-.29*	-.27
민감성/긍정적 지도	.39**	.35*
부정적 통제	-.41***	-.41**

* $p < .05$, ** $p < .01$, *** $p < .001$

또래 수용의 관계

아동의 정서성과 또래 수용의 관계가 과제 수행시 어머니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 여 집단별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단계에 아동의 정서성과 어머니 행동 중 앞선 상관 분석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을 투입한 후, 2단계에 이 변인들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주 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았다. 즉, 남아는 1단계에 부정적 정서성과 네 가지 어머니 행동을 하나씩 투입한 후, 2단계에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다. 반면, 여아는 1단계에 긍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행동 중 민감성/긍정적 지도 또는 부정적 통제 행동을 하나씩 투입한 후 2단계에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부정적 통제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만이 주 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6$, $p < .05$). 그 밖의 남, 여 아동의 정서성과 어머니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또래 수용에 대한 남아의 정서성과 어머니 행동의 상호작용 효과

변 인	1단계 계수	2단계 계수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	-.21	-.21
어머니의 부정적 통제	-.38**	-.32*
부정적 정서성 × 부정적 통제		-.26*
R^2		.06*
R^2	.21	.27
F	7.66***	7.06***

* $p < .05$, ** $p < .01$, *** $p < .001$

남아의 또래 수용에 대한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부정적 통제 행동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어머니의 부정적 통제 행동의 평균 및 표준 편차 점수에 근거하여 전체를 상·중·하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 평정 간의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부정적 통제 행동이 높은 집단에서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 수용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통제 행동을 많이 할 때 화를 잘 내고 잘 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 정서 성향이 또래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부정적 통제 행동이 보통 수준 이하인 경우에

는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또래 수용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어머니의 부정적 통제 수준에 따른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 수용과의 관계

상관 변인 어머니의 부정적 통제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 수용 점수
상위집단($n=19$)	$r=-.51^*$
중간집단($n=22$)	$r=-.06$
하위집단($n=19$)	$r=-.14$

* $p<.05$

본 연구는 학령 전 아동의 또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 외적 요인에 관심을 갖고, 만 5, 6세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 내 요인으로 아동의 정서성 및 대인간 요인으로 과제 수행시 어머니 행동과 아동의 또래 수용의 관계를 남녀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변인의 상호관련성에 기초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아동의 또래 수용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문제에 따라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성은 또래 수용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이는 아동의 성과 정서성의 하위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 성향이 낮은 남아와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여아가 또래 집단에게 선호되었다. 이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였지만, 학령 전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서적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Hubbard와 Coie(1994)의 주장을 지

지하는 결과이다.

정서성의 하위 차원에 따라 논의하여 보면, 긍정적 정서성은 여아의 또래 수용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잘 웃고 유쾌한 여아가 또래 집단에게 선호되었는데, 이는 긍정적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박성은·박성연, 2001; Arsenio et al., 2000; Cole et al., 1994; Sroufe et al., 1984). Sroufe 등(1984)은 화가 나있거나 슬픈 아동보다 유쾌한 아동 주위에 있는 것이 더 즐거운 것이며 따라서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또래에게 더 인기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평소 잘 웃고 즐거운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남아의 또래 수용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사회적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 부합되는 결과이다(Eisenberg et al., 1993; Hubbard & Coie, 1994; Rubin et al., 1991; Stocker & Dunn, 1990). 더욱이 Eisenberg 등(1993)의 연구에서 학령 전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남아의 또래 지위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남아의 또래 수용에만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책을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 집단에게 선호되지 않을 수 있다. Lemerise와 Arsenio (2000)는 강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아동은 압도되고 자기 초점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반응을

산출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남아는 또래와의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래들에게 거부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예상과는 달리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또래 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정적 정서성의 내용에서 추론해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성은 화를 잘 내는 것과 같은 분노 성향 뿐 아니라 잘 울거나 두려움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슬픔이나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 특징은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더 용인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또래 평가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정서성과 또래 수용의 관계는 선행 연구들과 유사하나, 흥미로운 것은 아동의 성에 따라 중요한 정서성의 하위 영역이 달랐다는 것이다. 잘 웃고 즐거운 것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성향은 남아보다 여아 또래 집단에게 더 중요하게 평가된 반면, 화를 잘 내고 잘 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 정서 성향은 남아가 또래 집단에게 선호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에 따라 또래 집단에서 중요시되는 개인 내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아동의 성에 따라 또래 집단에서 중요한 아동의 개인 내 특성이 어떻게 다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협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관찰된 어머니 행동은 남, 여 아동의 또래 수용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주었다. 즉, 과제 수행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가 민감하고 적절한 지도 행동을 보이고 부정적인 통제 행동을 덜 나타낼수록 남, 여 아동은 또래 집단에게 선호되었으며,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는 덜 보이는 어머니의 아들이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예언하며(Denham, et al., 1991), 어머니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경험이 아동의 공격적 행동(Dishion, 1990; Wahler & Dumas, 1986)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 부족을 초래하여 또래 집단에 수용되지 못하게 한다는 선행 연구들(MacDonald & Parke, 1984; Putallaz, 1987; Rubin et al., 1990)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과제 수행시 어머니 행동과 아동의 또래 수용의 관계는 아동이 평소 부모와의 상호작용시 부모를 관찰하고 자기 행동의 모델로서 모방하여 이를 다른 사회적 관계인 또래에게 적용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Ladd & Le Sieur, 1995). Ladd와 Le Sieur(1995)는 아동은 갈등시 부모가 사용하는 특별한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이 목적을 성취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이 행동을 연습한 뒤 다른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적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표현과 같은 어머니의 정서적 측면은 남아의 또래 수용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의 정서 표현이 통제나 지시성 측면보다 아동의 사회적 수용에 더 영향력이 있으므로 아동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동성부모의 정서 표현이 중요하다

고 제안한 Isley 등(Isley, O'Neil, & Parke, 1996) 등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민감성/긍정적 지도 및 부정적 통제 행동과 같은 양육 행동의 통제적 측면이 남, 여 아동의 또래 수용과 더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여아 어머니의 정서 표현과 여아의 또래 수용의 상관 계수가 .27~.30 정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사례수의 부족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여아의 또래 수용에 어머니의 정서적 측면이 관계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성에 따라 또래 수용에 중요한 어머니 행동 차원이 정서와 통제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정서성과 또래 수용 간의 관계가 어머니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부정적 통제 행동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 통제 행동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 수용의 관계를 중재한다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의 본질을 탐색해 본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부정적 통제의 수준이 높을 경우에만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아동의 개인내, 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상호작용적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Rubin의 연구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 아동의 정서성은 학령전기부터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구인(Eisenberg, Guthrie, Fabes, Reiser, Murphy,

Holgren, Maszk, & Losoya, 1997)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아동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적이기 보다 아동을 둘러싼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Rubin 등(1998)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또래에게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특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정적 지배 행동을 많이 보이는 남아의 경우에 유의하다고 하였다. 또한 Rubin 등(2001)은 유아의 억제된 사회적 행동이 정서 역조절과 어머니의 부적절한 지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됨을 보여주면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위축된 사회적 행동 뿐 아니라 정서 역조절 성향과 같은 생리적 요인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도 남아의 경우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부합된다. 따라서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아동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 성향과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 맥락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령 전 아동의 또래 수용과 관련하여 아동 개인의 특성인 정서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영향은 그의 어머니가 부적절한 통제 행동을 많이 보일 때 더 커진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아의 또래 수용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는 남아의 또래 관계를 이해할 때 그 개인의 또 다른 맥락 체계인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어머니가 부정적 통제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자녀와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많이 할 경우 아동 개인의 부정적 정서 특징이 아동의 또래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완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질

적으로 부정적인 정서 성향을 지닌 남아가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지닐 가능성이 높지만 어머니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지닌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가정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상관 관계에 기초한 연구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이해할 때 양방향 관계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와 아동만을 대상에 포함하였으므로 연구 대상 어머니들이 대부분 아동에게 관심이 많은 집단이라는 점, 남녀 집단별로 나누어 볼 때 대상 표집 수가 충분하지 않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또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행동에 관한 자료를 자녀와의 상호작용 관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질문지 사용시 나타나는 응답의 바람직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 생태학적으로 타당한 측정이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학령 전 아동의 또래 수용과 관련된 개인내, 외적 변인을 포함하여 살펴보고 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그 관계 과정을 이해하고자 함으로써 이 시기 아동의 또래 수용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권연희 (2002).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성연 (1998). 영아기 정서성 및 부모의 양육 행동에 따른 3세 아동의 행동 억제. *대한가정학회지*, 36(4), 19-33.

박성은·박성연 (2001).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양육 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남·여 아동의 행동 억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29-47.

박주희 (2000).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 양육 목표, 양육 행동 및 또래 관리 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손승희 (2002). 어머니 양육 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또래 유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nderson, D. L. (1994). A comparison of mother-child interaction and maternal responsivity in conjoint problem-solving with ADHD and ADHD/OD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Arsenio, W. F., Cooperman, S., & Lover, A. (2000). Affective predictors of preschoolers' aggression and peer accepta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38-448.

Asher, S. R., & Hymel, S. (1981).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 Sociometric and behavioral assessment. In J. D. Wine & M. D. Smye(Eds.), *Social competence* (pp. 125-157). NY: The Guilford Press.

Asher, S. R., Singleton, L. C., Tinsley, B. R., & Hymel, S. (1979). A reliable sociometric measure for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443-444.

Belsky, J., Hsieh, K., & Crnic, K. (1996). Infant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ity: One dimension or two? *Developmental Psychology*, 32, 289-298.

Clark, K. E., & Ladd, G. W. (2000). Connectedness

-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85-498.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 A clinical perspective.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pp. 73-100).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Daniels-Beirness, T. (1989). Measuring peer status in boys and girls: A problems of apples and oranges? In B. H. Schneider, G. Attili, J. Nadel, & R. P. Weissberg(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pp. 107-120). Kluwer Academic Publishers.
- Denham, S. A., Renwick, S. M., & Holt, R. W. (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 242-249.
- Dumas, J .E. (1989). Let's not forget the context in behavioral assessment. *Behavioral Assessment*, 11, 231-247.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Eisengerg, N., Guthrie, I. K., Fabes, R. A., Reiser, M., Murphy, B. C., Holgren, R., Maszk, P., & Losoya, S. (1997).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resiliency and competent social function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8, 295-311.
- Hart, G. H., Ladd, G. W., & Burleson, B. R. (1990). Children's expectations of the outcomes of social strategies: Relations with sociometric status and maternal disciplinary style. *Child Development*, 61, 127-137.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P. H. Mussen & E. M. Hetheringto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 ed., pp. 103-196). New York: Wiley.
- Hubbard, J. A., & Coie, J. D.(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
- Isely, S. L., O'Neil, R., & Parke, R. D. (1996). The relations of parental affect and control behaviors to children's classroom acceptance: A concurrent and predictive analysi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7, 7-23.
- Katz, L. F., Kramer, L., & Gottman, J. M. (1992). Conflict and emotions in marital,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In C. U. Shantz & W. W.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122-149).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rmen, A. M., & Block, J. (1998). The roots of ego-control in young adulthood: links with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4), 1062-1075.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add, G. W., & Le Sieur, K. D. (1995). Parents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Vol. 4): *Applied*

- and practical parenting. Hillsdale, NJ: Erlbaum.
- Lemerise, E. A.,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Olson, S. L. (1992). Development of conduct problems and peer rejection in preschool children: A social systems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 327-350.
- Parke, R. D., & Tinsely, B. J. (1987). Family interaction in infancy.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Y: John Wiley & Sons.
- Parker, R. D., & Asher, S. R. (1987). Peer acceptance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Rubin, K. H., Cheah, C. S. L., & Fox, N. A. (2001).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nd the display of social reticence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 97-115.
- Rubin, K. H., Hastings, P., Chen, X., Stewart, S., & McNichol, K. (1998). Intra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s of aggression,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oddler. *Child Development, 69*(6), 1614-1629.
- Rubin, K. H., Hymel, S., Mills, R. S. L., & Rose-Krasnor, L. (1991). Conceptualizing different pathways to and from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 In D. Cicchetti & S. Toth(Eds.), *The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expressions of dysfunction* (pp. 91-12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in, K. H., LeMare, L., & Lollis, S. (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217-24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in, K. H., & Rose-Krasnor, L. (1992).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V. B. VanHasselt & M. Hersen (Eds.),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A lifespan perspective* (pp. 283-323). New York: Plenum.
- Sroufe, L. A., Schork, E., Motti, F., Lawroski, N., & LaFreniere, P.(1984). The role of affect in social competence. In C. E. Izard, J. Kagan, & R. Zajonc(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pp. 289-319).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cker, C., & Dunn, J. (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childhood: Links with friendships and peer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227-244.
- Thompson, R. A. (1994). Emotional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Serial No. 240, pp. 25-5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ld's Peer Acceptance in relation to Child's Emotionality and Maternal Behaviors

Yeonhee Kwon Kyungja Park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 of peer acceptance to children's emotionality and maternal behaviors during mother-child interaction. A total of 102 children(60 boys, 42 girls; aged 5-6 years old) and their mothers were studied. Child's peer acceptance was measured via one-to-one interview. Child's emotionality was assessed by a mother reported questionnaire, and maternal behaviors were video-taped in a structured joint task situation. These relations were analyzed separately for boys and girls. Positive emotional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girl's peer acceptance, but negative emotionality had negative relations to boy's peer acceptance. Mother's sensitivity/positive control and mother's negative control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boy's and girl's peer acceptance. Mother'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boy's peer acceptanc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nteraction of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negative control predicted boy's peer acceptance above and beyond the main effects. Boy's peer acceptance, whose mother demonstrated high levels of negative control, was associated significantly with negative emotionality.

Keywords: peer acceptance, child's emotionality, maternal behaviors during mother-child interaction